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입력 : 2006.05.08 22:36 / 수정 : 2006.05.08 22:3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08/2006050870577.html

대학도 기업 시대 돈도 벌고 인재도 키우고

경희대 수원캠퍼스 과수원쪽 한 켠에 있는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단층 짜리 건물인 이곳에서 만든 한방상품이 요즘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작년 12월 출시된 건강보조식품 '홍삼녹용대보진액'은 한 홈쇼핑 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약 50억원(순수익 약 2억원) 가량 팔렸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50억원 매출은 문제없다. 실무를 담당하는 이민호 박사는 "학교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이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수익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 장학금 등 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만 인식되는 시대는 지났다.

실험실이나 캠퍼스에서 뒹굴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학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퍼지면서 수익 창출에 나서는 대학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도 매년 거액을 주면서 대학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희대 학생들이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에서 만든 홍삼녹용대보진액의 생산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18개 학교(대학)기업이 2004년에 올린 매출은 4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6억 10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대가 기계공학부 등 공대 중심으로 설립한 '경량부품가공센터'는 기어·동력전달장치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에 나서 10여개월 사이에 총 매출 2억 4000만원, 순수익 1억 9000만원이란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강원대가 세운 'BR 미디어프로덕션'은 무려 10억 5600만원의 매출(순익 1억 6500만원)실적을 내는 등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학교기업이 10개에 달했다.

대학이 손 대는 분야도 학과만큼 다양하다. 기능성 쌀(충남대)과 축산물 가공업(전북대)에서부터 제빵(순천향대), 나전칠기(배재대), 화장품제조업(대구한의대), 미용업(광주여대), 게임소프트웨어(호남대) 등 대학마다 돈 될 만한 사업엔 모두 진출하고 있다.

영화영상 콘텐츠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동서대의 '동서필름'은 57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해 6억원의 매출과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과학 도시인 대전의 대덕대는 로봇 완구

제작업체인 'D2E 로보틱스'를 통해 지난해 5300만원이란 째깍한 수익을 올렸다.

명절에 자체 생산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상대는 올 초 설을 앞두고 학교기업인 '경남동물과학기술(GAST)'에서 생산한 한우 선물세트를 내놨다. 떡국을 끓이는데 필요한 국거리용 한우와 햄 소시지 등을 판 것. 충남대도 국내산 6년근 홍삼 제품을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등 학교기업에서 만든 상품은 이제 민간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 공식 집계로만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을 체험한 대학생이 5000명(2004~2005년)을 넘고 총 매출액이 65억원(총 수익 10억 5000만원)에 이른다. 학교기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점도 받고 수익이 나면 일부는 장학금 등으로 보상도 받는다.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을 해주면서 돈도 벌며 재정에 도움되고 학생 입장에서 학비도 대고 공부도 하니 서로가 '윈-윈'이다.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학교기업도 여럿 나오고 있다. 포스텍(포항공대 새 이름)은 5월 중에 학교기업 1호를 출범시킨다. 'NSB(NanoSurface Bioscience)'가 그것으로 유전자 칩 기술을 의료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포스텍은 학교기업을 통한 로열티(기술이전료) 수입을 지난해 3억원에서 2020년에 97억원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크게](#) [작게](#) [프린트](#) [닫기](#)